JULY

20110702-16
20110709-16
20110717-24
20110725-29
and
EVERY DAY

we can pray

SPRING
SHINCHON Church Young Adult Ministry
신촌성결교회 청년부

묵상 노트

SPRING Life

2011 **7** 월호

사도행전

SPRING
SHINCHON Church Young Adult Ministry

신촌성결교회청년부

신촌성결교회 2011 청년부

해외단기선교

인도 · 미얀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라!"

일정과 사역

선교팀명	기 간	사역내용
인도2주팀	7. 2(토)~7.16(토)	어린이 사역, 구제사역, 다양한 전도
인도1주팀	7. 9(토)~7.16(토)	의료사역, 구제사역, 봉사활동
미얀마팀	7.17(주)~7.24(주)	구호활동, 어린이/장년 사역, 현지부족방문

기도제목

1. 단기선교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각 팀에 필요한 재정을 잘 채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잘 배우며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인도, 미얀마 현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주세요
4. 모든 팀원들이 단기선교 기간동안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5. 팀원의 안전과 건강,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울보!! 91 송영빈 형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LTS 1단계 과정을 밟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디어금식이나 영적으로 힘들 때 등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 과정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승리의 영을 통한 기쁨의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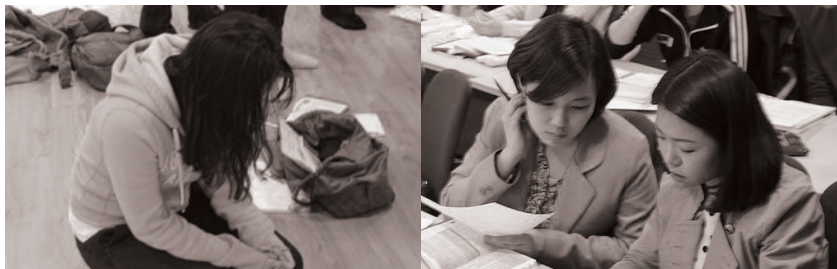
LTS는 묵상이나 재정, 권위,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내적치유, 예배, 제자도 등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강의를 들으면서 원래 알고 있던 잘못된 틀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고 세세한 뜻을 모르고 넘어갔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LTS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들이 고쳐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LTS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내적치유'시간 이었습니다. LTS 내적치유 기간이 아니었으면 원래 살아오던 대로 제한적인 생각을 가

지고 힘들게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저는 무엇이든지 완벽해지려 하는 '완벽주의 자아'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완전하게 의로우려고 하고, 조금만 죄가 있어도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아 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완벽할 수 있었으면 신이지 사람이 아닌데...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아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작은 불신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믿음과 같이 공존해 왔던 것 같아요. 입으로 머리로 몸으로 아닌 것처럼 말하고 생각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해왔는데 결국에는 제 병든 자아상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잘못된 것들이 그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속에서 조금씩 악한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생각이나 의지로도 제어할 수 없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100% 신뢰하지 못한 채 두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기도, 찬양할 자격이 있나?'하는 정죄감과 사단의 속임에 쉽게 휘둘리고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를 반복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제가 LTS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생각으로 제 이런저런 마음까지 다루어 주시길 바라면서 정직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이나 생각이나 의지로 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괴로웠던 그 마음까지도 놓고 정직하게 기도를 한 순간 그 마음을 치유해주셨습니다. 그 때 느낀 평안과 행복은 이전까지의 성령체험과 달랐습니다.

제가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어린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이 찢기고 고통을 받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알고 보니 저를 힘들게 하던 것들은 제 자신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하나님을 제한해버린 것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신다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왔고,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차목적이 될 수 있게 제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머릿속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며, 성령이 나를 품어주시는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으

로 깨달은 순간, 예배 속에서 찬양이 새롭게 느껴지고, 그 찬양 가사의 한 단어 한 글자가 감동되었습니다. 제 기도가 이전과 다르게 더욱 깊어지게 되었고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울보가 되었습니다. ^^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제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순간 나약한 우리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LTS만 마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어디론가 날아갔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LTS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언제든지 나약해 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바른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제는 LTS에서 배운 방법들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진짜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순종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LTS는 당연히 제 삶의 전환점입니다.^^

자유함과 신뢰함!! 86 최윤정 자매

내 삶의 리더를 알다

리더십은 자신 스스로를 리드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것이라고 어느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이제 1연차가 되가는 순간에 과연 내가 나의 삶을 잘 주도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터라 그 글귀가 아직도 마음 속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잘 이끌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LTS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격주로 일을 나가고 더더욱 황금주말이라 여기는 주말 시간이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작부터, 아니 시작하기 전부터 저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내 삶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 스스로 저의 삶을 꾸려 나가려니 선택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던 것 입니다. 그 모든 책

임과 행동을 제가 다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 강해 보이지만 정말 나약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이끌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기보다 '너의 삶을 누가 이끌고 있는가' 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집사님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LTS 2단계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이상훈 집사님께서는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자료와 이론이 있지만 그보다 저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여 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상훈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리더십을 배우길 원하신다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정답을 찾기보다 전체적인 LTS 2단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상훈 집사님의 자세와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문제를 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내가 있는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상훈 집사님의 솔직하고 진심이 담긴 말씀은 공감도 많이 되고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떤 생각으로 가족들을 대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내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정리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르침이 성경을 중심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니 자유함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LTS 2단계를 마친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이 글을 쓰며 어떻게 달라졌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본격적으로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제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기에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또 적용이 되었을 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휴일이 격주였던 회사가 6월부터 주 5일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내 삶의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리더십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휘되는군요! 아마 제가 LTS 2단계를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에 대해 느끼고 배울 것이라는 것도 계획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참 감사하고 잊지 못할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증인

사도행전 1:1-11

01:0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01:0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01:0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01:0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01:0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01:0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01:0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01:0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01:0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01: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0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새로운 사도

사도행전 1:12-26

01:12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01: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01: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01:15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01:16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01:17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01:18 (이 사람이 불의의 삯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01:19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01:20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01:21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01: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01:23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01:24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01:25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01:26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성령세례

사도행전 2:1-13

02:0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02:0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02:0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02:0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02:0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02:0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02:0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02:0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02:0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02: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02: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02: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02: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07 Thursday

예언이 성취되었다

사도행전 2:14-21

02: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02: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02: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02: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02: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02: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02: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0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08 Friday 예수의 부활을 설교함

사도행전 2:22-36

02: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02:23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02:24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02: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02:26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02: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02:28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02:29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02: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02:31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02: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02: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02: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02: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0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다

사도행전 2:37-42

0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0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02: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02: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02: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0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1 Monday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43-47

02: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02: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02: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0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0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앉은뱅이를 고치다

사도행전 3:1-10

03:01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03:02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03:0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03:0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03:0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03:0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03:0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03:0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03:0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03:10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3:11-26

03:11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03: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03: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03: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03: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03: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03:17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03:18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0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03:20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03:21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03: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03:23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03:24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03:25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03:26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대제사장 앞에서 증언하다

사도행전 4:1-12

04:0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04:02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04:03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04:0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04:05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04:0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04:0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04:0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04:09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04: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04: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0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위협에 의연하게 대처하다

사도행전 4:13-22

04:13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04:14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04:15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04:16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04: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04:18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04: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04: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04:21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04:22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의 기도

사도행전 4:23-31

04:23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04:24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04: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04: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04: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04: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04:2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04: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04: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18 Monday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사도행전 4:32-37

04: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04: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04: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04: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04: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04:37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1-11

05:0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05:0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05:0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05:0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05:0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05:0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05:07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05:08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05:0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05:10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05: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20 Wednesday 사도들의 표적

사도행전 5:12-16

05: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05: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05:1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05: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05:16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21 Thursday 사도들이 겪는 핍박

사도행전 5:17-32

05:17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05:18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05:19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05: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05:21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05:22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05:23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05:24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05:25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05:26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05:27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05:28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05: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05: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05: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05: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22 Friday 물러서지 않는 사역

사도행전 5:33-42

05:33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05:34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05:35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05:36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05:37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05:3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05:39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05:40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05: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05: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일곱 일꾼을 뽑다

사도행전 6:1-7

06:0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06:0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06:0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06:0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06:0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06:0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06:0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잡히다

사도행전 6:8-15

06:08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06:09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06:10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06:11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06:12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06: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06:14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06:15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영광의 하나님이 이끄신 길

사도행전 7:1-16

07:01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07:02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07:03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07:0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07:05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07:06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사백 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07:07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 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07:08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07:09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07:10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07:11 그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07:12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07:13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07:14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

07:15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07:16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27 Wednesday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를 보내심

사도행전 7:17-29

07:17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07: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07:19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새

07:20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07:21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07: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07:23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07:24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07:25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07:26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07:27 그 동무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07:28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07:29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28 Thursday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원자

사도행전 7:30-43

07:30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07:31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07: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07:33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07:34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07:35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07:36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07:37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07: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07:39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07:40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07:41 그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07:42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07:43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세대

사도행전 7:44-53

07:44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07:45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07:46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07:47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07: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07:49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07:50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07: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07:52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07:53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성령충만한 죽음

사도행전 7:54-8:3

07: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07: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07: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07: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07:58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07:59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07: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08:0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08:02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08:0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01 Monday 위험하지만 기회다

사도행전 8:4-13

08:0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08:0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08:0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08:0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08:0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08:09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08:10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08:11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0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08: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함

사도행전 8:14-25

08: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08:15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08: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08:17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08:18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08: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08:20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08:21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08:22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08:23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08:24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08:25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26-40

08:26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08: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08:28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08: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08:30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08:31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08:32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08:33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08:34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08: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08: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08:37 (없음)

08:38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08:39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08: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04 Thursday

사울이 주님을 만나다

사도행전 9:1-9

09:0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09:0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09:0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09:0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09:0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09:0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09:0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09:0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09:0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나니아와 사울

사도행전 9:10-22

09: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09: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09: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09: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09: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09: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09: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09: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09: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09:19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09: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09:21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09:22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로

사도행전 9:23-31

09:23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09:24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09: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09:26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09: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09:28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09:29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09:30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09: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묵상 노트
SPRING Life

발행일 | 2011. 07. 03
발행인 | 신 건 목사
신촌성결교회 청년부

발 행 | 문서선교팀 (담당사역자 | 박수범 목사)
표지 디자인 - 최윤정
내지 디자인 - 이흥범
컨텐트 수집&정리 - 박세라 서유진 이상미
이정은 조신재
기획 / 편집 - 송영일

문의 | 박수범 목사 (010. 2990. 3371)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20:5